

제2355호 2019. 5. 5. 부활 제3주일(생명 주일)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에 대한 특별한 사랑으로 하사하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생명의 주인은 당연히 하느님이시고, 인간은 단지 그분이 맡기신 생명을 잘 보존하고 풍요롭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살 권리’라고 말을 할 때 이 권리는 인간의 권리라기보다는 하느님께 속하는 것이며, ‘죽을 권리’ 역시도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본래 계획에 따라 자기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생명 윤리 문제의 수가 날로 많아지고 있고 그 문제들의 복잡성 또한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은 그 목적을 상실해버려 생명에 대한 봉사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험재료로써 배아를 만드는가 하면, 복제인간의 문제, 인간과 동물의 교배실험, 정자·난자를 상품으로 매매하기도 하고, 한 아기를 만들기 위해 여러 태아를 죽이는 시험관 아기, 낙태, 자신의 자궁을 빌려주는 대리모, 유전자 조작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인간 생명을 경시하고 해치는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소명, 곧 생명의 관리자로서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생명의 가치보다 경제가치를 더 우선시하여 생명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사회가 ‘죽음의 문화’로 물들어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인간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인간은 윤리와 도덕의 끈으로 그 의무와 책임의 고리를 연결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생명을 잘 수호하고 보존해 나가기 위한 생명의 관리자요 봉사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모든 생명들을 잘 돌보아라.”

이현우 요한 신부 | 교구 가정사목국장

주일 진례

- 입 당 송**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 본 기 도**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 제 1 독 서** 사도 5,27-32,40-41
- 화 답 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제 2 독 서** 묵시 5,11-14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 복 음** 요한 21,1-19
- 영 성 체 송**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알렐루야.

청원기도.- 알렐루야2. 다윗

* ...a secret chord that David played and it pleased the Lord
...The fourth, the fifth, the minor fall and the major lift
The baffled king composing Hallelujah 레너드 코언

람브란트의 “목욕하는 밋 세바”, 주인공은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야의 아내였던 그녀가 목욕하는 모습을 본 다윗이 자신의 여인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의 그림 속에는 내려다보는 다윗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나 람브란트는, 훑쳐보는 남자의 시선이 아닌, 다윗이 보낸 유혹의 은밀한 편지를 들고 고뇌하는 밋 세바를 그렸습니다.

거대장군 골리앗을 이겨낸 다윗,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눈멀어 무기력한 인간, 한 나라의 왕이지만 은밀한 죄인, 그것을 다 아시고 용서하시는 하느님. 그런 자신의 처지와 모습, 하느님의 자비에 어쩔 줄을 모르던(baffled) 다윗은, 절망 안에서 길을 발견합니다. 집착과 소유욕에 취해 있던 왕은 자신의 비천함과 미련함을 깨닫습니다. 밋 세바의 고뇌가, 이제 다윗의 고뇌가 되어 승화됩니다. 허울 좋은 욕망의 왕이 아닌, 고양된 자유인이자 하느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찢어진 가슴이 알렐루야를 노래합니다.

우슬초로 제 죄를 없애 주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 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 주소서.
당신께서 부수셨던 뼈들이 기뻐 뛰리이다. 시편 50,9-10

* 다윗이 주님께.. 단조 내림.. 장조 올림.. 당혹스럽던 왕은 알렐루야를 노래합니다.



평례 작은 음악회

아름다운 계절 성모성월에 성모님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음악회**와
전시회를 열고자 합니다.
평례성지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평례성지

제1부 감사미사

주례 :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일시 : 5월 18일(토) 늦은 4시

제2부 아가페

5시부터 / 라우렌시오 집에서

제3부 작은음악회

6시부터 / 라우렌시오 집에서

문의처 055.391.1205

● **봉곡성당 구세주의 어머니 브레시디움 2000차 주회**



| 봉곡동성당(주임 : 조명래 안드레아 신부) 로사리오의 모후 꾸리아 소속 '구세주의 어머니' 브레시디움(단장 : 구순연 미카엘라)이 지난 4월 5일 2000차 주회를 가졌다. 단원들은 기도와 더불어 무료급식소 '나눔의 집' 봉사, 전례, 성모회 등 성당봉사를 하며, 2000차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모님의 군사로서 활동해 왔다.

● **교구청 직원 봄 소풍**



| 교구청 직원들은 지난 4월 26일 거제 지심도로 봄소풍을 다녀왔다. 이날 소풍에는 총대리 박창균 신부를 비롯한 직원 49명이 함께하였다. 비 때문에 걱정했지만, 비는 잠시 내렸다. 지심도 공소에서 점심(장승포성당 주임 박혁호 신부의 빨랑카 회 덕분에 더욱 풍성해진 점심)을 먹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동백나무 가득한 아름다운 섬을 둘러보며 담소와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 **진해장애인복지관 파첼합창단 창원 NC파크 야구경기 애국가 제창**



| 진해장애인복지관(관장 : 김정우 라파엘 신부) 파첼(Pacem:라틴어-평화)합창단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월 18일 창원NC파크 마산구장에서 애국가를 불렀다. 파첼합창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 세상의 평화를 위해 노래하고자 2017년 3월 창단되었다. 30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파첼합창단은 창단 2년 동안 12회의 크고 작은 공연활동을 펼쳐왔다.

● **고성성당 사도들의 어머니 브레시디움, 평화의 어머니 브레시디움 2000차 주회**



| 그리스도의 모친 꾸리아 소속 '사도들의 어머니' 브레시디움(1월23일)과 '평화의 어머니' 브레시디움(4월10일)이 각 2000차 주회를 맞이하여 기쁨을 나누었다. 두 브레시디움은 1980년에 창단되어 근 40년 동안 기도생활은 물론 예비자 입교, 쉬는 교우 회두, 단원 모집 등 레지오 활동을 열심히 해 타 브레시디움의 모범이 되었다. 특히 '평화의 어머니' 브레시디움 소속 송용수(심포로사) 단원은 창단 때부터 한결같은 기도와 활동으로 모범을 보여 많은 신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두 브레시디움 단원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약속했다.

105차 이민의 날



미사 : 주교님과 함께



베트남 축하공연
'띠이 웬 청동북'



단체사진

우리 마산교구 창원 이주민센터에서는 지난 4월 28일 부활 제 2주일이면서,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에 감사드리느 하느님의 자비주일에 '105차 이민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이 날 베트남 친구 400여 명, 필리핀 친구 150명 그리고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50명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매년 마산교구에서 실시하는 '이민의 날'은 교구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가톨릭 외국인 주민들이 하루라는 시간동안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 하느님을 찬미하고, 같은 고향 사람도 만납니다. 사랑하는 고국, 고향, 가족, 친척과 친구를 떠나서 타향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날마다 향수병과 싸우는 것은 삶의 도전이며, 마음의 전투입니다.

우리 마산교구 창원이주민센터와 각 나라별 신앙 공동체(창원, 마산, 진주, 거제)는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은 매주 모여 각 나라의 언어로 전례에 참여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태환경문화 월간지 **작은것이아름답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환경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과 함께 한 사순시기 묵상집을 읽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시려는 분들에게 <작은것이아름답다>를 소개합니다.

<작은것이아름답다>는 1996년에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 생태환경문화 월간지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환경문화운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 (사)작은것이아름답다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266호를 펴내며 23년 동안 지구를 살리는 초록빛 이야기들을 재생종이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대안생활과 녹색문화를 일구어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작은것이아름답다>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작은것이아름답다 | www.jaga.or.kr
전자우편 | jaga@greenkorea.org

숲을 살리는 재생종이 | www.green-paper.org
페이스북 | @jagagreen | 연락처 | 02.744.9074~5

“어른이 만든

아이들의 세상 7”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장면 1 : 경기도 안성시에서 고등학생인 A 군이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서 도로변의 건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남녀 2명씩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주 여부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장면 2 : 대전에서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연인을 덮쳐 여성은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10대 무면허 운전자는 지난해부터 5차례 차를 빌렸는데 하루 렌트 비용은 15만 원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안 돼!” “그렇죠?! 마빡에 피도 안 마른 어린 녀석들이 술을 마셨는지 어쨌는지 저런 사고를 내다니. 어휴~ 말세다 말세.” 과연 그렇습니까? 어른님들, 어른님들께서 우리나라에서만 5년간 11만 건이 넘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셨습니다. 매년 평균 2만 2천여 건으로 하루 60여 건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애들 욕할 거 있습니까?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천 8백 명이 넘었고, 부상자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무면허로 렌트카를 빌린 것은 나쁜 일이지만 불법으로 빌려준 사람은 돈에 눈이 먼 어른입니다. 아이들만 나무라지 마십시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어린 왕자가 한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700년 전 ‘수메르 점토판’에 자식의 게으름을 나무라는 아버지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이란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랐듯이.

영개나무 앞에서

영혼의 트랙
교구 가톨릭 문인회

이상숙 안토니아 • 시인

시간의 선물인가. 언제부턴가 엄나무가 좋아졌다. “두릅 팔아서 영개 산다”고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정도로 엄나무의 순을 즐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순도 순이지만 이보다 전신이 가시로 삼엄한 엄나무의 저 근엄한 자태 자체가 대단히 매력적이다. 솔직히 촌에 살기 전에는 이 나무에 다가서기가 섬찟하고 무서웠다. 그런데 해마다 봄이 되면 그 가시 사이로 연하디 연한 새순을 틔워내는 게 얼마나 기특하고 장엄한지 모른다. 순을 따다가 가끔 찢어서 손가락이나 손등에 피가 나도 그 가시가 가시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그를 함부로 대하다가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라 깊이 자성하게 된다. 그러면 이 나무가 이런 노래를 불러준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설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매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설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찢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설 곳 없네”

또 하나 엄나무는 별명이 많아서 좋다. 지역에 따라 엄나무나 음나무라 하기도 하고 영개나무 또는 개두릅이라 부르기

도 한다. 이칭異稱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과 친숙하다는 뜻일 것이다. 실제로 한방에서 엄나무껍질을 해동 피海桐皮라 하여 관절염, 종기, 암, 피부병 등 염증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신경통에도 잘 들으며 만성간염과 같은 간장 질환에도 효과가 크다고 한다. 그래서 봄이 오면 엄나무 순을 즐겨 먹고, 여름이면 삼계탕이나 닭백숙에 엄나무 가지를 넣어 먹었다. 이런 효용 가치로 인해 옛날에는 초가거나 기와집이거나 대개 마당 한쪽에 이 나무가 서 있었다. 유년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특히 귀신 쫓는 나무라며 안방, 부엌, 뒷간 문틀 위에 이 나뭇가지가 마치 성지가지인양 걸려 있었다.

그때는 감히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었던 이 나무였다. 하지만 지금은 해마다 새순만 따먹기가 미안해서 일부러 가시를 한번 쓱 만져도 본다. 뿌리는 같은데 새순과 가시는 마치 돌배기 손바닥과 칠순의 시어머니 눈매 같다. 오늘 이들이 속삭인다. 자기를 가까이하면 무서운 귀신인 병마病魔가 쫓겨난다고. 마치 구세주 예수님(새순)과 심판자 예수님(가시)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악한 세월에 진주가 운다. 우리가 새순 맛만 알고 가시를 잊은 탓은 아닐까.



교구장 동정

일 시 : 5. 11.(토)
장 소 : 창원 문성대학 체육관
내 용 : 올프레아 50주년 미사

일 시 : 5. 12.(주일)
장 소 : 고성성당
내 용 : 고성본당 80주년 미사

항심기도의 열매와 은사 (2박 3일)

일 시 : 5. 27.(월) 15:00~29.(수) 15: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항심기도 피정 경험이 있으신 분
참비 : 16만 원
문 의 : 055.221.1891



교구·본당

■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일 시 : 5. 6.(월)
장 소 : 거제성지
문 의 : 사무처 055.249.7016

■ **예비신학생, 여성소자 모임**

일 시 : 5. 12.(주일) 10:3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가정성화와 생명수호 미사**

일 시 : 5. 12.(주일) 10:30
장 소 : 진교성당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 습 : 매주 (화) 19:3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대 상 : 남·여 신자(만 55세 까지)
문 의 :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 **사목 방문** ::

5. 7.(화) 중앙동

■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 상 :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 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 의 :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위원회·기관·단체

■ **꾸르실로 50주년 행사**

일 시 : 5. 11.(토) 10:00~16:00
장 소 : 창원 문성대학 체육관
문 의 : 담당자 010.6606.2563

■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내 용 : 식당봉사, 방과후수업(요리, 방송댄스, 볼링)
기 간 : 3월부터 12월
장 소 :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 의 : 055.247.5195~7

■ **고성 천사의 집 자원봉사자 모집**

기 간 : 상시(평일 및 주말)
장 소 : 고성 천사의 집
분 야 : 용접
문 의 : 055.673.6609, 010.4557.3251



수도회

■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 아래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예약가능
일 정 : 5. 10.~12./ 5. 19.~22.(추자도)/
5. 31.~6. 2./ 6. 10.~13.(추자도)/
6. 16.~19.(추자도)/ 6. 22.~24.
문 의 : 02.773.1463/ 064.756.6009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 시 : 5. 14.~17./ 5. 19.~21./ 5. 23.~26./
5. 29.~31./ 6. 10.~12./ 6. 14.~16.
대 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 의 : 제주 성 이시돌 064.796.9181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2일 : 5. 25.(토)~26.(주일)/ 6. 15.(토)~16.(주일)
3박4일 : 6. 6.(목)~9.(주일)/ 7. 11.(금)~14.(월)
8박9일 : 6. 24.(월)~7. 2.(화)/ 8. 7.(수)~15.(목)
40일피정 : 6. 17.(월)~7. 26.(금)/ 9. 16.(월)~10. 25.(금)
장 소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 의 : 010.4906.5722/ 031.953.6932

■ **골롬반 젊은이 선교체험(대만)**

일 시 : 8. 1.(목)~6.(화) 5박6일
대 상 : 만19세~만35세, 청년 남녀 15명
경 비 : 100만 원(항공료포함)
신 청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02.953.0613



기 타

■ **부산교구 전국 젊은이 성령축제**

일 시 : 5. 6.(월)
장 소 : 주교좌 남천성당
참비 : 사전 1만원, 현장 5천원
문 의 : 010.6340.2512

■ **파티마발현 102주년 기념행사**

일 시 : 5. 9.(목) / 장 소 : 임진각
차량비 : 3만 원
준비물 : 도시락, 생수, 모자, 돗자리
문 의 : 010.4848.7106

■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후기)**

마 감 : 5. 9.(목) 월, 목 야간수업
대 상 :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 택 : 50% 장학금(학생 전원)
문 의 : 053.660.5253/ 010.6563.0409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풍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함 종 전(요한)

055)808-7722, 010-9210-8880

위치 : 마산진동 한해자동차운전학원 앞

savin

성악 스튜디오

T.070.4384.8730

blog.naver.com/franz32

조 현 울 프란체스코

마산회원구 양덕1동 주민센터 맞은편 2층

(주) 성운고속관광

"신자분 우대 합니다"

45인승 (대형) 성지순례 출퇴근 일반여행 산악회

16인승 (벤츠) 골프/VIP 공항투어 워딩 가족관광

대표 김종규 바오로

010.4588.3448/055.273.0505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3: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T. 055.293.5605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 055.391.1205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5월 24일	코카서스 3국 성지순례	13일 415 만원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분도여행사 **02.852.8525**

■ 서울 삼성산성지 2박 3일 무료 치유 대파정

일 시 : 5. 10.(금) 18:00~12.(주일) 15:00
장 소 : 삼성산 피정의 집
강 사 : 황인수이나시오 신부의 전국 유명 강사
내 용 :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출 발 : 마산역 김안과 앞(10:30 출발)
문 의 : 010.7752.0194

■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 발 : 매월 1회, 4박 5일/ 비 용 : 64만 원
지 역 :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문 의 : 송진욱 신부 010.3005.9028

■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기념

생명나눔·생명존중 작품공모전
기 간 : 5. 1.(수)~ 9. 30(월)
분 야 : 포스터, 슬로건, 글짓기, 동영상, 웹툰
접수방법 : obos.or.kr 참조 웹하드 및 우편
주 관 : 한국평협,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도박을 끊고 싶으십니까?

매주 정기적인 모임으로 도박질병을 치료하고 도박이 없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익명의 모임입니다.
한국단도박모임 : www.dandobak.or.kr
장 소 : 월남동성당
일 시 : 매 (주일) 17:00
문 의 : 담당자 010.9992.3443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 편 :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 solace@cathms.or.kr
문 의 : 055.249.7002~3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 시 : 매주 (수) 14:00~17:30, 19:30~21:00
장 소 : 중동성당 / 대 상 : 신자, 일반인
내 용 :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 의 :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 성경부 월특강 성경 배경 이야기 ::

일 정 : 5. 14.(화) 탈출과 정착 시대
6. 11.(화) 왕정시대
9. 10.(화) 유배와 귀환시대
11. 12.(화)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
시 간 : 14:00~16:00
장 소 : 교구청 1층 대강당
강 사 : 정연우 스테파노 신부
수강료 : 3만 원
문 의 : 성경부 055.249.7025~6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 samok1@cathms.or.kr
문 의 : 사목국 055.242.6776

2019 엠마오 여행 (투카 24,13~35)

▶ 교구 홈페이지 참조

1 말씀풀이 3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첫번째 계약을 맺은 곳은?
(탈출기 24장 : 000 산)

2 순례와 미사 마산교구 순교복자 성지 또는 하느님의 종 묘소

3 증언하기 부활인사 또는 부활체험 나누기

응모내용 : 말씀풀이 5개, 순례지 사진 1장, 부활인사 또는 부활체험 나눔
응모기간 : 부활 제5주일 ~ 주님 승천 대축일
보내실곳 : 미디어국 media2@cathms.or.kr 또는 전화(부활 제5주일 공지)
보내실곳 메일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물발표 :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례	문 의
교 구	5. 6.(월) 19:00	월남동성당	애주애인愛主愛人	최봉원 신부(야고보)	최봉원 신부(야고보)	010-5072-5612
창원지구	5. 6.(월) 19:00	반 송 성 당	제2강 :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보경(아빌라데레사, 수원교구)	이동진 신부(안셀모)	010-4553-7425
청 년	매주 (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 미사, 셋째주 : 치유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5. 11(토) 14:00, 5.12(주일)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3015-1773	

 라파엘여행사 ◆ 9/9 추석특선 이스라엘,오르단 10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아테리일주 9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홍콩마카오 4일 (139만원) ◆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 10일 (335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SM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의로 489 (팔.8.5)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제라퍼나 055.288.1137/010.6299.1137	베트남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부산 or 대구 출발 직항편 매일확보 / 전문 교우가이드 배치 1. 북부 순교성지 + 하노이/하롱베이 3박5일 (110만원~) 2. 중부 성모발현지 + 다낭/호이안 3박5일 (110만원~) 3. 북부 + 중부 성지 핵심일정 포함 4박6일 (130만원~) <분당 및 신심단체 환영, 소규모 그룹 연합(상시 모객), 별도일정 협의가능> 투어찬스 대표 이승준 요한 보스코 (마산 상계) 010-2992-4785 마 에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에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	--	--	---

유사종교의 잘못된 이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Ⅱ

‘하나님의 교회, 영국 여왕 자원 봉사상 수상!’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커다란 현수막에 ‘영국 여왕상 수상’, ‘대영제국최고 훈장의 영예’, 혹은 ‘대통령 표창’이라는 문구로 자신들을 알리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교회’)를 마주할 때가 있다. 언뜻 보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하여 큰 상을 받은 훌륭한 교회로 보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성당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저런 큰 상을 받을 수 있었지?’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들이 어떤 활동으로 저러한 상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선전을 앞세운 그들의 포교에 의해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그들 교리의 내용을 똑바로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를 믿게 하기 위해
안식일, 파스카, 부활, 종말 개념을 이용한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열 가지 계명인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느님을 따르는 생활의 규범이 된다. 하지만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라는 십계명의 제3계명은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도구가 된다. 그들에 따르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자신들 이외에 다른 교회들은 주일인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있기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주님의 날인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 즉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자신들 이외에 다른 교회들은 주님의 날을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보내기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의 창립자 안상홍은 자신의 분파를 창립하기 전, 또 다른 이단 분파인 ‘안식교’(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활동했다. 그래서 그는 안식교가 주장하는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주님의 날로써 기념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그는 구약의 파스카[유월(逾越)]인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와 더불어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성령이 임한 안상홍 자신의 파스카로써 이 시대의 구원의 완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하느님

으로 만들기 위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분리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신약 시대에만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진 ‘실패한 구원자’로 치부한다. 그리고 새로운 이 시대는 안상홍이 모든 것을 완성할 구원자로 선택받았고 그를 기념하는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주님의 날로 기념하는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인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마태 28, 1)인 일요일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 안식일과 파스카라는 개념을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자라고 자신했던 안상홍은 1985년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부활’을 또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여, 안상홍이 3년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3년 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곧이어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완성의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른바 ‘지한부 종말론’을 주장한다. 종말이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된 사람만이 구원받고 그외에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종말을 예언한 1988년과 2000년 역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파스카, 안식일, 부활, 종말을 그들 주장에 이용하고, 심지어 자매님들이 미사 때 쓰는 미사포까지 사용하는 그들이지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인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는 바로 ‘부활 신앙’이다. 그리스도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당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가톨릭교회교리서, 638항 참조) 그리스도에게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의미인 파스카의 완성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약의 옛 약속의 완성이며 “장차 우리 부활의 근원이며 원천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655항)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종말을 파멸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죽은 이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이루어질 때는 하느님의 광채가 하늘나라를 비출”(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51항) 순간을 기다리는 ‘희망’으로 간직하여, 우리의 고귀한 신앙을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1코린 15,14)